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내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서 세 번째 정기 연주회 개최

스위스에서 치를 입단 오디션을 이틀 앞둔 작년 9월18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25)은 부산문화회관에 있었다.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 공연에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다.

이후 곧장 취리히로 날아갔다. 비행기가 도착하는 바람에 숙소에서 3시간 쪽잠을 잔 뒤 몽롱한 상태로 오전 9시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오케스트라의 파트를 받쳐줄 악기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가리키는 엑서프츠(excerpts)를 익히느라 비행기에서 한 숨도 자지 못했다.

후드티, 청바지, 스니커즈 차림의 김재원이 오디션장 문을 열자 그녀가 어릴 적 참여한 마스터클래스를 주최한 곳에서 연 유명 콩쿠르의 입상자도 눈에 띄었다. 엄격한 서류 전형은 거쳐 1차 오디션에 도전한 이는 30명가량. 2차에 김재원을 포함, 3명이 올라갔다. 마지막 3차에서는 그녀만 남았다. 단원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시작했다.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악장 김재원.

그렇게 김재원은 스위스 명문 악단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의 제2악장이 됐다. 이 오케스트라 사상 최초 한국인 제2악장이다. 3년 동안 세 차례 오디션에서 한 명도 뽑지 않은 이 악단이 적임자로 김재원을 택했다.

1868년 설립된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는 제네바의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양대 악단으로 꼽힌다.

2014~2015시즌부터 리오넬 브랑기에가 상임 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2019~2020시즌부터는 에스토니아의 파보 예르비가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이끈다. 김재원은 예르비 임기가 시작하는 8월부터 제2악장으로 활동한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김재원은 “제가 동양인이고 여자이고 아직 학생인 것도 알아서 악단 쪽에서 선입견 없이 듣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콧대가 높은 독일인이 대부분인데, 벽 없이 인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큰 박수도 보내주셨죠. 어머니 마한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시다”

롯데콘서트홀에서 만난 김재원은 역시 청바지를 입고, 스니커즈를 입은 채 웃고 있었다.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는 김재원이 도전한 두 번째 악단 입단 오디션이다. 첫 오디션 자리는 세계적인 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부악장. 이 악단의 부악장이던 아야코 다나가 프랑스 릴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옮기면서, 자리가 났다.

당시 김재원의 나이는 만 23세. 오디션을 뒤늦게 알게 돼 하루 전날 접수를 했고, 첫 직장을 구하는 만큼 조바심도 났다는 그녀는 그럼에도 오디션에 지원한 55명을 제치고 파이널까지 올라갔다. 결국 1차 오디션을 면제 받은 악단의 다른 연주자에게 부악장 자리가 돌아갔지만 김재원

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2악장 자리가 매력적인 이유는 악장으로서 30회 이상 공연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 이 악단의 악장 3명은 이미 김재원을 크게 흡족해했다. 한명은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축하편지라며 장문의 e-메일을 보냈다. 다른 악장은 김재원이 독일어를 공부하러 왔든 베를린에 도치오 퍼 공연을 위해 왔다가 그녀와 만나 인사하며 역시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또 다른 악장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이다 사하치인데 한국 피아니스트 허승연의 실내악 멤버로 지난해 내한 당시 김재원을 만났다.

이처럼 타고난 연주자는 사람의 마음까지 끌고 다닌다. 김재원이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손색 없는 이유다. 18~28세 음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 이 오케스트라는 “유스”라고 무시했다고는 큰코 다친다.

롯데문화재단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작년 1월 지휘자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함께 창단했는데, 김재원의 취리히 톨랄레에 입단이 이 악단의 악장이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됐다. 오케스트라 전문 연주자 양성이 목표이며 빈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이 지도한다. 김재원 외에 오보에 단원 이인영이 코리아심포니 부수석으로 입단하기도 했다.

김재원이 정명훈을 처음 만난 때는 2015년. 그가 지휘한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콘서트에 객원으로 참여하면서. 당시 정명훈의 주특기 중 하나인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연주했다.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아카데미에서 뒷줄에 앉아 정명훈을 멀리서 지켜보며 듣고 배우던 그녀는 지금 그의 바로 옆에서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주자가 됐다.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를 통해 정명훈 선생님께 배우면서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지금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하실지 감을 잡죠. 확실한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부산 출신인 김재원은 부산예중을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한 뒤 김남준 등을 사사하고 졸업했다. 서울시향 악장을 지낸 현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악장 스페틀린 루세브의 권유로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김재원은 솔리스트로만 부각되기를 희망한 기존 클래식계 분위기와 달리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또 다른 연주자의 길을 개척하는 젊은 연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흐름의 대표적 보이다.

“제 유럽 친구들이 유명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연주를 잘하는 솔리스트들이에요. 그런데 실내악 그룹을 무조건 병행해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도 많이 하고요. 솔리스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면, 오케스트라에 몸 담거나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는 어마어마한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 영향도 받았어요.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김재원은 지난해 말 부산에서 부산시향과 협연을 했는데 이 악단을 이끄는 최수열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은 그녀에게 “오케스트라를 잘 아는 연주자”라며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는 내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브람스 교향곡 2번과 피아니스트 임주희의 협연으로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뉴시스

‘마음에서 입술로 간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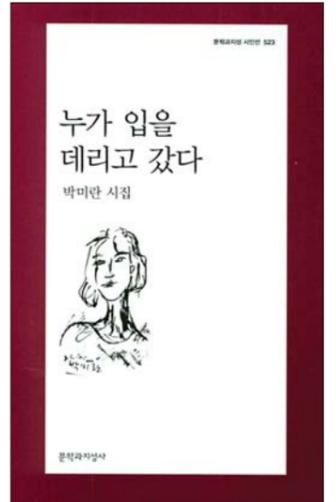
박미란 시집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 출간

‘빨간 바게트를 들고 나온 총각과 멋지게 헤어졌다. 안녕,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한때 잘 자라던 양치 식물이 말라비들어지며 무거운 정오를 제 몸속에 구겨 넣었다. 모든 걸 쥌 수는 없다. 목구멍에서 위장까지, 안방에서 거실까지의 길을 지우려면 걸지 않으면 된다. 인사하지 않으면 된다’ (‘안녕’ 중)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미란의 시집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가 나왔다. 시 56편이 담겼다.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후회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말은 비참해서 입술에서 나가는 순간 열음이 되어요 어느 때부터가 차가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음이 심한 병상고의 커다란 열음덩어리에 힘들었던 적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안고 살아왔는지 몸속의 종양 덩어리를 뱉어놓은 듯 병상고는 멈추었어요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차가운 당신, 당신이러는 환상을, 견디기 싫어졌어요 마음의 열음덩어리를 들어내면 또 후회하겠지만 녹는 순간을 지켜보면 마지막 천사처럼 우리의 느닷없는 밤도 흘러갔어요’ (‘저녁에서 밤으로 흘러들었다’ 중)

‘옛날에 우리는 때때로 할 말을 잃고 까마득히 깊어져서 더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의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빛나



며 여기까지 흘러왔으니 잘 가라, 아주 잘 가거라’ (‘복극성’ 중)

시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줄기 빛이 마음에서 입술로 건너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뒤를 돌아보면 너는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참, 시시하기도 하지 이 모든 뒤적임” 121쪽, 9000원, 문학재정사 /뉴시스

전북 경제 이끌어갈 디자인 자문위원회 발족

(재)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강신재)는 21일 제1기 전북도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P는 이날 전북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북도 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도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전북 디자인 산업방향에 대한 정책자문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세부진행사항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전북도 디자인 산업진흥과 육성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전라북도 이남섭 기업지원과장과 유재갑 전북디자인센터장을 비롯해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1차 자문회의는 2018년도 전북디자인센터의 운영성과와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전북 디자인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발표 및 논의로 진행되며, 현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산업 정책수립 및 사업운영 기본방향의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참석 위원들로부터 전북지역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디자인 주도 전북 경제를 이끌어 가는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